

# 민주, 당직 인선 완료... 본격 총선 체제 '속도'

### 이재명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박정현·정책위의장 이개호 임명 당무 복귀 첫 인선...계파·지역 안배 통합 방점 친명·비명계 등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총선 출신 여성 친명(친 이재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지역구의 비명(비 이재명)계인 3선 이개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가 '통합' 일선으로 당무에 복귀한 후 단행한 첫 인선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친명계에선 총정 여성 원외 인사와 호남의 비명계를 나란히 등용한 것은 계파·지역 안배를 통한 통합에 방점을 찍은 탕평 인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명계에선 공천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회의의 친명 일석이 더 강해진 '무늬만 통합'이라는 반발과 함께 조정직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직문을 통해 인선 결과를 전하면서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유능한 분들"이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를 두 달 만에 채우게 됐다. 김민석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출마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 자리는 이개호 의원이 맡게 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정현 최고위원은 다음 달 1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 정책위의장에 대해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라며 "내년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당내 대

표적인 비명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한때 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조정직 사무총장 거취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 최고위원 임명으로 지도부의 친명 색채가 더욱 뚜렷해 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직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당장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부총장들까지 사임시키라"고 주장했다.

사무총장은 당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 따라서 친명계 사무총장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리를 지킨다면 비명계로서는 '물갈이' 가능성을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관례에 따라 곧 출범할 총선거확단체까지 조 사무총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여 비명계의 걱정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당의 화합을 위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에게 총선거확단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친명계는 당내 사정에 밝은 조 사무총장 대신 새로운 인사가 오게 되면 총선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친명계는 특히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당시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를 불문에 부치는 등 통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며 비명계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친명과 비명계 사이에 사무총장 거취 문제를 놓고 현격한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총선 공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계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포기', '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 의대 유치·군 공항 이전 적극 추진”

### 이개호 신임 정책위의장...당 정책 구상 등 민심 견인 역할 주목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장성·영광·사진)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3역으로 꼽히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위의장은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당의 정책 등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개호 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행정고시(24회) 출신의 이 위원장은 지방과 중앙 행정 현장에서 전뎀가 굽으며 전남도 부지사, 민주당 제3·4정책조정위원장,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을 지낸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3선 중진에 일관한 성품으로 당 내외의 신뢰가 높고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호남 정치권의 만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며 "모든 정책과 법안의 방향을 민생 최우선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가장 시급한 민생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홍익표 원내대표,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평소 소통이 잘 되고 있어 한 팀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



안,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과의 공조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근 여권이 소모적 이념 공세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라며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 지역별 정책 공약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과의 소통을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 광주 군 공항 이전, 새만금 개발 사업 등 호남의 정책 공약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년, 노동자, 서민,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바짝 차리고 민생, 민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많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국힘 혁신위, 첫 외부 일정은 '5·18 참배'

### 인요한 위원장, 오늘 광주 방문... '서진정책' 힘 실릴듯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해제 등 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를 택하는 등 파격 행보에 나섰다. 특히 혁신위는 중진 의원들의 내년 총선 '힘줄 출마론'을 띄우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도 돌입했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대사면'을 최우선으로 논의했다. 이 전 대표에게 채웠던 징계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당내 갈등의 한 축이었던 비주류 끌어안기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혁신위의 대사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징계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혁신위의 초반 대외 일정은 국민통합 기조 아래 진행된다. 인요한 위원장과 일부 혁신위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어 오는 30일 혁신위는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을 참배한다.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의 호남 방문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공들여온 '서진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앞세운 혁신위의 외연 확장 시도는 두 번째 키워드인 변화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혁신위가 공천 물 문제에 혁신의 메스를 들 수 있을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의 서울 힘줄 출마론을 언급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영남·경남 스타들이 서울 힘줄에 와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한강 벨트에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고, 낙동강 뒷밭에는 정치 신인을 배치함으로써 세대교체를 이루내겠다는 함의도 담는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광주시당·투자기관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7일 시당에서 광주시 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노조협의회는 공동 단체교섭권 확립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돼 11개 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당과 노조협의회는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 일 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 이행 상황, 노동·사회 주요 현안을 수시로 함께 점검하고 지역 발전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박재홍 광주시 투자기관 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은 "노동계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제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협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광주가 노사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